

崔仁哲 教授指導
碩士學位請求論文

우리나라 初等英語教科書 構文과
原語民 兒童英語構文 比較 分析

2004年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英語教育專攻
金 銀 實

우리나라 初等英語教科書 構文과
原語民 兒童英語構文 比較 分析

崔仁哲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英語教育專攻
金 銀 實

認 准 書

金銀實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감사의 글

본 논문을 마치기까지 부족한 저를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따끔한 채찍으로 이끌어주신 최인철 지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에 수고해 주신 신명신 교수님과 정소우 교수님! 많은 지적 감사합니다.

논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해주셨던 서기용 씨! 바쁜 와중에서도 저를 위해 항상 달려와 주셨어요. 교선이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논문 때문에 엄마 품에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했던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교선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그래도 잘 참아주었고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어서 너무나 고맙구나. 밥도 잘 먹어야지! 또한 제주도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옆에 가까워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셨는데 논문 잘 쓰라고 항상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부여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논문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논문 잘 끝냈다고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밤새워 지켜봐준 교선이 고모! 우리 부부대신 해서 어려운 일들을 해주신 순희 언니 그리고 많이 걱정해 주신 태근, 태현, 태일이 오빠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머니! 늘 저에게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아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서기용씨 그리고 우리 아들 서교선 사랑해요!

<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우리나라 3, 4, 5, 6학년 교과서의 구문과 원어민 아동영어 구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으로 인하여 세계는 보다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인터넷 정보의 80%이상이 영어로 쓰여 있다는 사실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어는 단지 학습과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21세기 세계시민으로 살아나갈 아동들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초등영어교과서가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발맞추어 살아있는 생생한 표현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원어민 아동영어와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구문을 비교 분석하는 본 논문이 우리나라 초등영어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저 원어민 아동영어와 우리나라 영어교과서에서 나오는 구문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점이 있다고 가정을 내리고 그럼 어디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내려고 하였다. 원어민 아동영어 구문을 수집함에 있어서는 처음 원어민 아동이 그들의 모국어를 배우는 시기의 구문을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 학교진학하기 전 영어를 유치부(kindergarten), 그리고 초등저학년의 영어구문을 초등저학년(pre-teen)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다. 분석기준은 15가지 항목 단/중/복단/중/복(Type of sentences), 문장의 형식(Verb-based Basic Structures), 문장의 종류(Sentence Types & Discourse Functions), 시제(Tense & Aspect), 태(Passive Voice : Subject ←Object), 법(Mood : Tone/Attitude), 관계사(Relative : Linking Antecedents with Modifying

Clauses), 특수구문(Structural Variations), 분사구문(Participle Clause), 준동사(Verbals), 접속사(Conjunctions: Linking Phrases/Clause), 연결사(Cohesive Markers), 비교구문(Comparison), 의사소통기능(Function), 이독도(Readability) 별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총 15개 항목 중에서 원어민아동은 다양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교과서 구문은 단/중/복문에서 단문이 90% 이상이 보이고 시제에서도 현재시제가 지배적이며 수동태, 가정법, 관계사, 분사구문, 연결사구문은 전무한 상태였고 접속사에서는 and, but의 한정된 표현만이 수록되어 있었다.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에서도 보이는 구문이 비교구문은 6학년교과서에서만 찾아 볼 수 있었다. 문장의 이독도(Readability)에서도 학년의 단계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교과서는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보다도 쉬운 문장들이었다.

본 논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너무 우리 교과서가 우리 초등아동들의 인지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즉각적으로 말하게 하는 발화에 너무 비중을 두는 인상을 받았다. 이 결과 너무 쉽고 제한된 표현들만을 교과서에 싣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초등아동들에게 영어에 많이 노출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EFL상황에서는 여러 여건상 어렵다. 그러나 교과서마저도 너무 제한된 표현과 쉬운 문장들만을 수록한다는 우리 초등아동들의 영어능력신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것은 좀더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회화 전문 사설영어학원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조기영어교육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따라서 문법사항이 혹은 구문이 어렵더라도 실생활에 잘 사용되는 구문이라면 수록되어서 다양한 영어표현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너무 말하고 쓰는 부분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좀더 살아있고 생생한 구문들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이해측면도 고려를 해서 생생한 영어표현에 많이 접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영어표현들을 교과서에 수록한다는 것은 자칫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동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가르치되 아동들이 전부 알아야 하고 암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그 표현들을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서 그러한 구문들이 아동들에게 내재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구문 분석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항이 있었는데 4학년 구문에 우연히 준동사가 있었다. 그 표현을 보니 Nice to meet you!라는 구문이었다. 이것은 준동사 구문이고 문법사항을 얘기하자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이것은 4학년 아동에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구문이었으나 이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익숙한 구문이고 아무 무리 없이 초등학생들이 사용되는 구문이다. 이런 예가 있듯이 문법사항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주 쓰이는 구문들을 실생활과 결부해서 사용하도록 한다면 익숙한 구문이 될 것이고 이러한 표현들이 더 이상 어렵게 아동들에게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을 마치고 바라는 점은 공교육으로서 우리 초등영어교육이 사설영어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내실 있는 영어교육이 되었으면 하고 그런 방안으로서 우리 초등영어교과서가 많은 교육적 관심과 좀더 실질적인 연구 분석으로 교재편찬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어린이와 성인의 구문습득 능력비교.....	4
III. 구문 분석.....	13
1. 우리나라 초등영어교과서 단원 구성.....	14
2. 초등영어교과서와 원어민 영어구문 분석.....	16
1) 단문/중문/복문(Type of Sentences).....	16
2) 문장의 형식(Verb-based Basic Structures).....	19
3) 문장의 종류((Sentence Types & Discourse Functions)	22
4) 시제(Tense & Aspect).....	23
5) 태(Passive Voice).....	25
6) 법(Mood).....	27
7) 관계사(Relatives: Linking Antecedents with Modifying Clauses).....	29
8) 특수구문(Structural Variations).....	32
9) 분사구문(Participle Clauses).....	37
10) 준동사(Verbals).....	39
11) 접속사(Conjunctions : Linking phrases/ Clauses).....	42
12) 연결사(Cohesive Markers).....	45
13) 비교구문(Comparisons).....	47
14) 의사소통기능(Functions)	48
15) 이독도(Readability).....	64
① Fresch RE Formula.....	66
② Sentence Statistics.....	68
③ Word Statistics.....	68

IV. 결론 및 제언.....7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영어원어민과 비원어민의 문장이해도 평균점수	5
[표 2]	초등영어교과서 단원구성	14
[표 3]	단/중/복/혼합.....	16
[표 4]	문장의 형식	19
[표 5]	문장의 종류	22
[표 6]	시제.....	23
[표 7]	태.....	25
[표 8]	가정법-1.....	27
[표 9]	가정법-2.....	28
[표 10]	관계사-1.....	29
[표 11]	관계사-2.....	30
[표 12]	특수구문-1.....	34
[표 13]	특수구문-2.....	34
[표 14]	분사구문-1.....	37
[표 15]	분사구문-2.....	37
[표 16]	준동사-1.....	39
[표 17]	준동사-2.....	40
[표 18]	접속사-1.....	42
[표 19]	접속사-2.....	43
[표 20]	연결사.....	45
[표 21]	비교구문.....	47
[표 22]	초등3학년 의사소통기능	51
[표 23]	초등4학년 의사소통기능.....	53
[표 24]	초등5학년 의사소통기능.....	55
[표 25]	초등6학년 의사소통기능.....	57
[표 26]	원어민 유아 의사소통기능.....	59

[표 27]	원어민 유치부 의사소통기능.....	61
[표 28]	원어민 초등저학년 의사소통기능.....	63
[표 29]	RES 공식.....	66
[표 30]	RES.....	67
[표 31]	문장의 길이.....	68
[표 32]	어휘 길이	68

<그림 목차>

[그림1]	사춘기 이전 학습자 구문능숙도(Patkowski,1980) ...	7
[그림2]	사춘기 이후 학습자 구문능숙도(Patkowski,1980) ...	8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초등학교 특활 영어’는 그 이후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조기 영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1997년부터 전국 각 초등학교에서 조기 영어 교육으로서의 영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제는 각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의 일환이 아닌 정규 교과목으로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처럼 영어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조기교육열풍과 어린이 사설영어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영어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초등영어교육의 목표를 좀더 명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초등아동들이 모두 원어민처럼 유창한 발음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이상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의 국내에서는 그렇게 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원어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의 사고, 문화를 배울 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방식을 배울 수 있는 곳, 바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이다. 적어도 21세기에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국내외 정보를 자유자재로 모두 활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원어민처럼 유창한 발

음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고급수준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 그들 수준에 맞게 자유자재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초등영어교육이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영어가 국제공용어로서 중요성을 인식하여 영어에 대하여 친숙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이나 수준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생활영어중심으로 구성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초등교과서가 이것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초등아동들의 인지수준을 지나치게 고려해서 다양한 영어표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제한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즉, 우리 초등영어교육의 목표를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이라고 보았을 때 현재 우리 교과서로서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초등영어교과서의 BICS(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 위주의 간단한 영어구문들은 우리의 영어교육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충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보고 좀 더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살아있는(authentic) 영어구문에 즉, BICS & CALP(Cognitive/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구문이 혼합된 영어구문들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초등교과서와 원어민 교과서간의 구문에서

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럼 원어민 아동들이 쓰는 영어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초등영어교과서와 원어민 아동교재의 corpus내에서 발췌한 구문(BICS & CALP)들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영어교과서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초등아동들에게 좀더 현장감 있고 생생한 표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나라 영어교과서 편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행 초등영어교과서와 원어민 아동들이 사용하는 교재의 구문을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초등 3학년 교과서의 구문은 아동들이 처음 영어를 처음 접하는 시점이라 같은 연령대의 교재와 비교함에 있어서 문장의 형식, 문장의 길이, 어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 그래서 초등영어교과서와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의 원어민 교재의 선별에 있어서 약간의 한계점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비교대상이 되는 원어민 교재는 원어민아동들이 처음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의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 영어구문, 원어민 유치부(kindergarten) 과정의 구문 그리고 원어민 저학년(pre-teen)의 영어구문을 주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II.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의 구문분석과 관련하여 구문의 습득측면에서 Oyama(1978), Patkowski(1980), Johnson과 Newport(1989), DeKeyser(2000)의 연구를 통해 구문습득에 있어서 민감한 시기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사춘기 이전의 아동은 사춘기 이후의 성인들보다 구문습득에 있어서 유리함을 보였다. 이것은 본 논문의 결론과 결부해서 구문습득이 유리한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되도록 현장감 있고 생생한 표현의 영어구문들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영어능력신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1. 어린이와 성인의 영어구문습득 차이

Oyama(1978)는 민감한 시기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미국에 이민 온 이탈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장 반복하기 능력을 평가하였다. 연구자는 성공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인지, 영어 습득 시작 연령인지, 또는 학습자의 태도나 동기와 같은 정의적 요인 때문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피험자는 14세에서 37세 사이의 6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이 미국에 이민 온 나이(6 ~ 10세, 11 ~ 15세, 16 ~ 20세)와 미국에 거주한 기간(5 ~ 11년, 12 ~ 18년)에 따라 집단을 나누었다. 연구자는 또한 피험자의 태도나 동기와 같은 정의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험자를 면접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가 영어를 정확히 따라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장(예 : Shepherds seldom lose their sheep)에 소음이 섞이도록 녹음하고 소음의 정도를 달

리하여 12개 문장을 4번씩 들려주었다. 문장은 소음 때문에 듣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피험자는 문장을 들을 때 다양한 언어정보를 통합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평가 점수와 다른 변인들(피험자의 나이, 학습자의 정의적 변인, 거주기간)사이의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나이만이 평가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도표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 1] 영어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문장 이해도 평균 점수 (Oyama, 1978)

원어민	165.8(10명)			
비원어민				
거주기간	이민 온 나이			평균
	6~10	11~15	16~20	
12~18	163.4(11명)	119.1(11명)	110.1(9명)	132.2(31명)
5~11	141(8명)	131.6(12명)	123.7(9명)	131.7(29명)
평균	153.9(19명)	125.6(23명)	116.9(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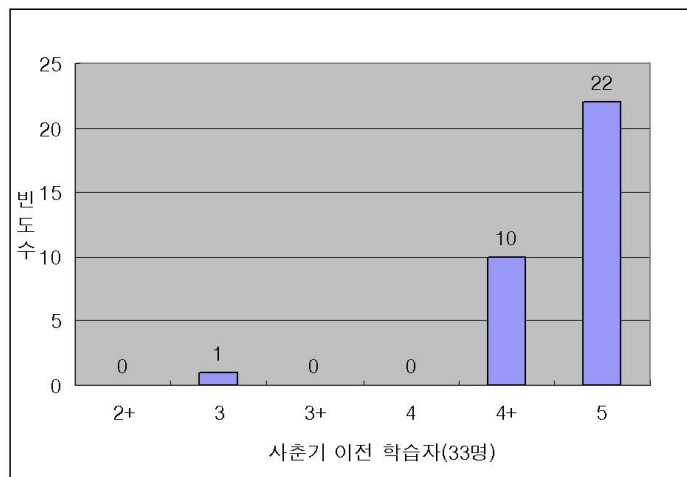
통제집단으로 포함된 원어민 10명의 평균점수는 165.8점이었다. 이민 와서 12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피험자의 경우, 이민 온 나이가 6~10세인 집단은 163.4점을 받은 반면, 11~15세 집단은 119.1점을 16~20세인 집단은 110.1점을 기록하여, 결과적으로 10세 이전에 이민 온 피험자들만이 원어민과 유사한 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음이 섞인 문장을 원어민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해하려면 10세 이전에 영어에 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Oyama는 이를 근거로 구문습득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해 능력이 아닌 발화능력 측면에서 구문습득에 민감한 시기가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Patkowski(1980)이다. 그는 구문의 습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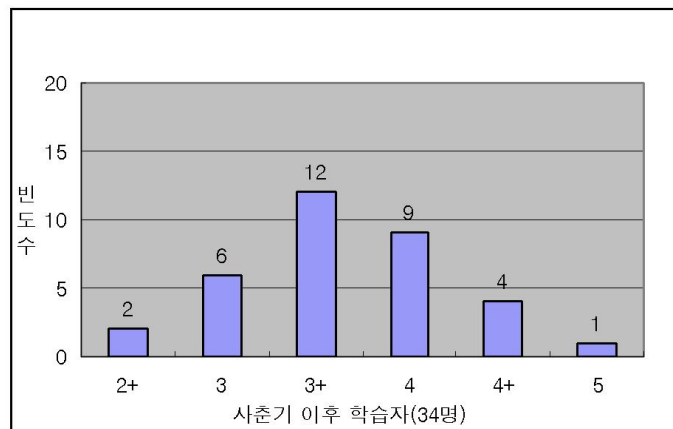
도 민감한 시기가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 와서 5년 이상 살고 있는 67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구문의 능숙도 (syntactic proficiency)를 측정하였다. 그는 나이 이외의 다른 변인을 통제하고자 교육수준을 고학력자로 제한하였고, 실험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입증하고자 이들과 교육수준이 유사한 15명의 미국 원어민을 통제집단으로 실험에 포함하였다. 피험자들은 15분에서 35분 정도 구두면접을 하였고, 면접한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다. 녹음된 내용을 평가자에게 직접 들려 줄 경우, 평가자가 피험자의 발음이나 억양에 영향을 받아 구문 능숙도를 평가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자가 피험자의 구문 능숙도만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녹음된 내용은 테이프로 들려주지 않고 종이에 전사하여 평가자에게 제시하였다. 구문의 능숙도 평가는 문법, 어휘, 의사소통 능력의 세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문법이 정확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절하고 광범위하며, 의사소통이 매끄럽고 유창하면 원어민의 능숙도와 동일하게 5점을 받는다. 평가자는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ESL교사 중에서 두 명을 선정하였으며, 피험자의 구문 능숙도를 0, 0+, 1, 1+, 2,...4+, 5의 11개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험의 독립변수로는 영어를 처음 배우게 된 나이와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 그리고 공식적으로 영어수업을 받은 수업시수를 택하였다. 피험자들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6년에서 61년이었으며, 영어를 처음 배운 나이는 5세에서부터 50세까지였다. 이들 중 33명은 15세 이전에 미국에 이민왔으며, 나머지 34명은 사춘기 이후에 미국에 이민 온 경우이다. 평가자간의 신뢰도는 상관관계가 78로서 매우 높았으며, 통제집단의 원어민 15명은 모두 5점을 받았다는 점에서 평가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kowski는 피험자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나이에 따라서 구문의 능숙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을 미국에 이민 온 나이에 따라서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15세 이전에 이민 온 33명은 사춘기 이전 학습자(prepuberty learners)로, 14세 이후에 이민 온 34명은 사춘기 이후 학습자(postpuberty learners)로 분류하였다. 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사춘기 이전과 이후에 이민 온 피험자 간에 특이할 만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은 각 집단의 점수 분포를 보여 준다.

[그림 1] 사춘기 이전 학습자 구문 능숙도(Patkowski, 1980)



[그림 2]사춘기 이후 학습자의 구문 능숙도(Patkowski, 1980)



사춘기 이전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집단에서는 전체 33명 중 22명이 원어민과 동일한 점수인 5점을 받았으며, 10명은 원어민과 거의 유사한 4+점수를 받았다. 한 명만이 3점을 받았다. 반면에 사춘기 이후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춘기 이후 학습자 집단에서는 다양한 점수 분포를 보였다. 평균 점수가 3+정도이었고 특이할 만한 것은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전체 34명 중 12명은 3+를 받았으나 2명은 영어를 아주 못하여 2+점, 그리고 1명은 원어민 수준과 동일한 점수인 5점을 받았다.

Patkowski는 피험자들의 영어구문 능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하여, 네 가지의 독립변인(영어습득 시작의 연령,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실제적으로 영어에 노출된 시간, 공식 영어수업시수)과 종속변인인 시험점수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나 실제로 영어를 접한 시간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된 연령, 즉 미국에 이민 온 나이만이 능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어민에 근접한 구문 능숙도를 성취하기 위하여

서는 사춘기 이전에 이민 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며, 사춘기 이후에 이민 온 경우에는 개인차가 크게 작용하며, 대체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20년이 될지라도 원어민과 유사한 영어를 구사하기가 어렵다는 추론을 내릴 수 있다.

Johnson과 Newport(1989)는 제2언어 습득에 민감한 시기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문법성 판단(grammaticality judgements)실험을 하였다. 미국에 이민 온 나이가 3세부터 39세 사이인 46명의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문장이 문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연구자는 과거시제, 복수형, 현재진행형, 관사, 어순, 의문문 등의 12항목에 해당하는 규칙을 평가하였다. 피험자들은 아래에서와 같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과 맞는 문장이 올바른 문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문장 앞의 별표는 그 문장이 틀린 문장임을 표시한다.

◎ 현재 진행형 The little boy is speaking to a policeman.

*The little boy is speak to a policeman.

◎ 의문문 where did she put the book?

*why did she put the book?

◎ 구절동사 The man climbed up the ladder carefully.

*The man climbed the ladder up carefully.

◎ 관사 Larry went home after the party.

*Larry went the home after the party.

연구자는 피험자의 이민 온 나이, 영어를 접한 기간, 그리고 피험자의 태도에 따라서 피험자의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미국에 거주한 기간 또는 학습자의 동기나 태도는 문법성 판단 시험점수와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이민 온 나이였다. 특히 10세 이전에 이민 온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시험 점수를 이민 온 나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관관계가 높았고 개인차가 거의 없었으나, 사춘기 이후에 이민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차가 거의 없었으나, 사춘기 이후에 이민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차가 심하고 이민 온 나이와 점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제2언어 습득에 민감한 시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언어습득 능력에 있어서 성인과 어린이의 차이가 민감한 시기에 기인한 것이라면 모든 어린이는 성공적으로 영어를 배워야 하고 모든 성인들이 똑같이 실패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성인이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배웠지만 원어민과 거의 똑같은 구사력을 성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어떤 학자들은 언어습득에 민감한 시기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Bialystok, 1997 ; Ioup외 3인, 1994 ; White와 Genesee, 1996). 가령 Bialystok(1997)은 캐나다로 이민 와서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민감한 시기 가설을 실험하였다. 이민 온 나이에 따라서 피험자의 점수를 분류하였는데, 결과는 15세 이후에 이민 온 집단이 15세 이전에 이민 온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Bialystok는 제 2언어 습득에 민감한 시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학자는 제2언어를 사춘기 이전에 배워야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성인이 된 후에도 제 2언어를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제 2언어 습득에 민감한 시기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서는 DeKeyser(2000)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DeKeyser는 위에서 언급한 Johnson과 Newport(1989)의 연구와 똑같은 실험 방법으로 57명의 헝가리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법성 판단 실험을 하였다. 문법성 판단에 의한 점수와 이민 온 나이를 통계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사춘기 이전에 이민 온 피험자가 사춘기 이후에 이민 온 피험자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DeKeyser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언어작성(verbal aptitude)이 성공적인 언어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각 피험자의 언어 적성 검사 점수와 문법성 판단 실험의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아동기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언어적성과 관계없이 모두 성공적으로 배우지만, 사춘기 이후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피험자의 경우에는 언어 적성이 높을 경우에만 영어를 성공적으로 배운 것이 드러났다. 즉, 사춘기 이후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피험자 중에서 소수는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 경우는 언어 적성이 높은 피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DeKeyser는 이러한 결과를 제2언어 습득에 민감한 시기가 있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소음이 섞인 문장을 따라 말하게 하여 이해도를 측정한 Oyama의 연구, 발화의 내용을 평가한 Patkowski의 연구, 그리고 문법성 판단 실험에 의한 Johnson과 Newport의 연구, Johnson과 Newport 실험을 재현한 DeKeyser의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언어 적성이나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언어 습득의 시작 연령만을 고려한다면, 어린이가 성인보다 구문의 습득에서 우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해석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결론이 성인기에 제2언어를 배우면 모두 실패한다는 주장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제2언어를 습득할 경우 최종적인 성취도를 측정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성인보다는 어린이가 우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Ⅲ. 구문 분석

여기서는 초등학교 3, 4, 5, 6학년의 구문 약 750개의 구문과 원어민들의 영어구문을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 원어민 유치부(kindergarten), 원어민 초등저학년(pre-teen)으로 나눠 약 2577개 구문을 단/중/복(Type of sentence), 문장의 형식(Verb-based Basic Structures), 문장의 종류(Sentence Types & Discourse Functions), 시제(Tense & Aspect), 태(Passive Voice : Subject ←Object), 법(Mood: Tone/Attitude), 관계사(Relatives : Linking Antecedents with Modifying Clauses), 특수구문(Structural Variations), 분사구문(Participle Clauses), 준동사(Verbals), 접속사(Conjunctions : Linking Phrases/Clause), 연결사(Cohesive Markers), 비교구문(Comparisons), 의사소통기능(Functions)별로 구분해 보았다. 그리고 Grammatic IV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이독도(Readability)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구문수집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단원구성을 살펴보자.

1.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단원 구성

[표 2] 초등영어교과서 단원구성

	내 용
1	Look and Listen Listen and Repeat Let's Play
2	Look and Speak Listen and Repeat Let's Sing Let's Chant Let's Play
3	Let's Read Let's Write Let's Play
4	Activity Role-Play Review

교과서는 모두 16단원으로, 각 단원은 4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의 예를 보겠다.

가. 1단계

- 인사와 소개의 말 듣고 이해하기
- 듣고 따라 말하기
- 공 던지기 놀이하기

나. 2단계

- 소개와 인사하기
- 듣고 따라 말하기

- 챗하기
- 인사놀이하기

다. 3단계

- 그림보고 인사와 소개의 말하기
- 노래 부르기
- 명함교환 놀이하기

라. 4단계

- 역할 놀이하기
- 배운 내용 정리하기

본 논문은 1차시의 Look and Listen의 지문과 2차시의 Look and Speak의 지문을 주로 하였다. 그 외 각 차시에 제시되는 Let's play에서 새로 제시되는 지문과 응용된 지문 그리고 4차시에 Role-Play에서 새로 첨가되는 지문을 수집하였다. 그러므로 똑같은 대화내용의 연습구문을 제외시켜서 원래 교과서의 구문들보다 수적으로 적게 분석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2. 초등영어교과서와 원어민 영어구문 분석

1) 단문/중문/복문/혼합(Type of Sentences)

[표 3] 단/중/복/혼합 (%)

대상 단/중/복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단	99	99	93	96	83	66	52
중			2	1	12	12	17
복	1	1	5	3	5	20	27
혼					1	1	4

[표 3]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에는 거의 단문이 지배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 원어민들의 문장구조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단문 비율이 우세하나 중문, 복문이 우리 초등교과서보다는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고 아주 극히 드물게 혼합문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교과서는 학년이 올라가서도 단문 지배적인 양상을 보이나 원어민 영어구문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문이 다양하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 구문에서 보이는 중문, 복문, 혼합문의 예이다.

<중문>

- a) Look again and you will see, the stars in the sky...
- b) We play and run around.

<복문>

- a) When I jump it jump.
- b) Can you guess where the baby is?

<혼합문>

- a) There is the sheep, it has a wooly coat and goes BAA, BAA...
- b) "Lets get under the covers and wait for the big bug!" said Ziggy.

다음은 원어민 유치부(Kindergarten)영어구문의 중문, 복문, 단문의 예이다.

<중문>

- a) Lightening flashes and thunder crashes.
- b) On Christmas eve lots of people walked in the streets and all of them carried presents.

<복문>

- a) When it was evening all daisies went to bed very early.
- b) He knew that his parents were poor.

<혼합>

- a) "You show them to your mother and your mother freaks out" said Coreen.

b) The mom looked and said "What's that? Worms?"

다음은 원어인 초등저학년(Pre-teen)의 중문, 복문, 혼합문의 예이다.

<중문>

- a) Now run along, and don't get into mischief.
- b) The next day, he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yelled, cockle doodle doo.

<복문>

- a) You can start now if you like.
- b) You mean I've got the job.

<혼합>

- a) Deanna's Grandma hooked on to the grain truck and the tractor with the swather and they pulled and pulled until finally they got the combine out.
- b) Deanna's Mom hooked on to Pa's tractor and they pulled and pulled until finally they got the combine out.

2) 문장의 형식(Verb-based Structures)

문장의 형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분석의 기준을 채택하였다.

- SV : The baby cried.(1형식)
- SVC : He is an English teacher.(2형식)
- SVO : I like Kimbap.(3형식)
- SVOO : He gave me a present.(4형식)
- SVOC : I think her very smart.(5형식)

[표 4] 문장의 형식 (%)

대상 문장의 형식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1	35	19	19	13	21	17	13
2	33	57	45	51	27	23	18
3	25	22	2	27	35	28	24
4					1		
5	5	2	1	4	1	2	
1,1 ¹⁾					2	2	4
1,2	2	1	3	1		1	2
1,3					1	4	5
2,1						1	1
2,2				1	2	3	2
2,3			2		2	4	5
3,1					1	3	5
3,2					2	3	4
3,3					4	8	12
1,3,3							1

1) 문장의 형식에서 1,1 2,1...의 의미는 중문,복문에서 문장이 둘이상 나타
나므로 각각을 분석한 것을 의미 함

[표 4] 문장의 형식을 보면 우리나라 3학년 교과서에서 보여지는 문장의 형식은 1형식, 2형식, 3형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영어를 처음 접하는 저학년 시기이므로 기본적인 구문인 1, 2, 3형식 문장이 골고루 보여진다고 해석된다.

<초등3년 - 1형식>

- a) wait.
- b) I can jump.

<초등3년 - 2형식>

- a) What's this?
- b) right.

<초등3년 - 3형식>

- a) Put on your sweater.
- b) Open your book.

초등4학년 문장의 형식으로는 4형식 구문은 볼 수 없으며 2형식 구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초등4년의 2형식 예문이다.

- a) What's your name?
- b) Is this your puppy?

초등5학년 초등영어에서 나타나는 문장의 형식은 2형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3형식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2형식의 예

이다.

- a) How are you?
- b) I am here.

초등6학년의 문장 형식에서는 2형식이 가장 많다. 2형식의 예이다.

- a) It looks delicious.
- b) I am fine.

원어민 아동영어 문장의 형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1, 2, 3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듯이 원어민 영어구문은 우리초등영어구문과 달리 단문 외에도 중문, 복문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므로 우리나라 초등영어보다 다양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의 3형식의 예이다.

- a) It makes the eggs for the children to eat.
- b) Froggy eats the bugs.

원어민 유치부(kindergarten)에서도 역시 1, 2, 3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어민 유치부(kindergarten)의 1, 2, 3형식의 예이다.

- a) A cloud comes along. (1형식)
- b) Once there was a poor farmer in a small town. (2형식)

c) Goldilocks likes baby bear's soup. (3형식)

그러나 원어민 초등저학년(pre-teen) 문장의 형식에서는 4, 5형식은 없고 1, 2, 3형식의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다양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3형식의 예이다.

a) I did not remember that I had minced it up so fine.

b) "I can't find it!" she said anxiously.

3) 문장의 종류(Sentence Types & Discourse Functions)

문장의 종류를 주로 나타나는 평서문, 의문문, 직접명령문, 간접명령문, 감탄문, 기원문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

[표 5] 문장의 종류 (%)

문장의 종류 \ 대상	대상				(원)	(원)	(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유아	유치부	초등저
평 서 문	59	61	59	63	78	85	87
의 문 문	10	19	21	23	15	5	7
직접명령문	24	5	8	5	6	4	3
간접명령문	7	4	3	4		1	
감 탄 문	23	11	8	3	1	3	2
기 원 문	1						

대다수 평서문 비율이 지배적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초등교과서가 원어민 아동영어보다 간접명령문, 감탄문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는 직접명령문 비율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원어민 영어 구문에서는 평서문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여러 가지 문장의 종류를 수록하여 다양한 표현을 접하게 하는 교과서의 특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측된다.

4) 시제(Tense & Aspect)

[표 6] 시제 (%)

대상 시제	3학 년	4학 년	5학 년	6학 년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과 거 형			11	11	13	55	59
과거완료형							2
과거진행형							2
현 재 형	97	98	82	80	77	32	19
현재완료형					2		2
현재진행형	3	2	6	3	4	2	1
미 래 형				6	1	2	2

위 [표 6]을 보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현재형 시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 현재진행형이 아주 낮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5학년 단계로 가서 비로소 과거형, 미래형 시제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어민 아동들의 구문의 시제를 살펴보면 시제가 우리나라 초등보다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 영어구문은 현재형 시제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거형 시제비율이 높다. 이것은 원어민 영어구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어

동화위주로 구문수집이 진행된 데에 기인된 것으로 추측된다. 바로 옛날이야기나 동화가 많은 만큼 과거형 시제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지할 사항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재형 시제 못지않게 과거형 시제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시기인 3, 4학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5, 6학년 단계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과거형 시제구문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학년별 시제의 예이다.

- a) Wait, I am coming.(초등3년 : 현재진)
- b) Oh, no! It's raining.(초등4년 : 현재진)
- c) Yes, I'm just listening to music.(초등5년 : 현재진)
- d) Oh, you went to Busan.(초등5년 : 과거)
- e) I will have a birthday party.(초등6년 : 미래)

다음은 원어민 교재에서 볼 수 있는 시제와 관련된 예문들이다.

- 1) And the bug passed them right on by.
(원어민 유아 : 과거)
- 2) What happens while Jack is sleeping?
(원어민 유아 : 현재진)
- 3) I'll love you forever.(원어민 유아: 미래)
- 4) Once there was a poor farmer in a small town.
(원어민 유치부 : 과거)
- 5) They are still wiggling. Black, green, yellow and red.

(원어민 유치부 : 현진)

6) Soon you'll close your eyes and sleep.

(원어민 유치부 : 미래)

7) Here was Old Brown sitting on his door-step, quite still, with his eyes closed, as if nothing had happened.

(원어민 초등저 : 과완)

8) He explained why he was paying his visit so early in the season.

(원어민 초등저: 과진)

9) My girl doesn't know it yet, but I have just laid some eggs on a nearby plant.

(원어민 초등저 : 과완)

5) 태(Passive Voice)

수동태는 초등교과서에 없는 구문이다. 수동태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나 문어체적인 글 등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일상대화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구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 단계에 어려운 구문일 수는 있다. [표 7]는 원어민 아동영어에서 수동태 비율을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 수동태비율이 적게 나타나지만 수동태구문의 부재로 나타나는 우리 초등영어교과서와는 달리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 구문에서 원어민 초등저학년(pre-teen)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표 7] 태 (%)

원어민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수동태	2	1	4

김장숙(1996)에 따르면 수동문은 행위자보다는 오히려 행위의 대상에 자연스럽게 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작의 중심 대상에 따라 그 대상을 강조하거나, 일반인이 주어로 오는 경우, 주체를 명시하기가 곤란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일반인 주어의 경우에는 by 이하를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고 있다.

원어민 아동영어에서도 by 이하의 구문이 생략된 구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원어민들의 수동구문에서도 이와 같이 행위의 대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구문들의 비율이 높았다.

H. Douglas Brown(1994)은 의사소통의 목적(Communicative goals)은 language usage가 아니라 language use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한다.

… Communicative goals are best achieved by giving due attention to language use and not just usage….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항은 수동구문이 초등아동들에게 어려운 구문이라도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구문이라면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야만 하고 수동구문 자체도 문법구문의 어법(usage)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동구문의 실제 생활에 사용(use)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수동구문을 ‘동사 + be동사 + p.p + by 행위자’라는 형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by 이하가 생략되는 구문인데도 억지로 형식에 짜 맞추어서 현장감(authenticity)이 없는 구문을 가르치지 말

아야겠다. 다음은 원어민 어린이 영어구문에서 나오는 수동구문의 예이다.

- a) An UMBRELLA is used during the rain.(원어민 유아)
- b) All people were supposed to drive away.(원어민 유치부)
- c) He was occupied in putting rusty nails into a bottle of ink, which he had obtained at the post office.(원어민 초등저학년)

6) 법(Mood : Tone/Attitude)

법은 일반적으로 직설법(indicative), 명령법(imperative), 가정법(subjunctive)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가정법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가정법 구문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말을 하려는 실제 상황에서 가정법의 동사형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들도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일 것이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가정법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원어민 영어구문에서 가정법 사용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8] 가정법-1 (%)

원어민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가정법	0	0	3

원어민 초등저학년(pre-teen)에서만 가정법 구문을 빈약하게 사용되었다. 이것은 원어민 아동의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 시기에는 단어위주의 영어구문이, 원어민 유

치부(kindergarten)시기에는 단어와 동사위주의 영어에서 초등저학년(pre-teen)에서는 일상생활영어에 가까운 구문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아동의 인지수준을 고려한 현상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원어민 초등저학년(pre-teen)에서의 쓰인 가정법만을 분석해 보았을 때 다양한 시제의 가정법이 사용이 되었다. 가정법을 시제별로 구분한 [표 9]를 보면

[표 9] 가정법-2 (%)

가정법	가정법과-완	가정법과거	가정법현재	가정법미래
(원)초등저	24	12	56	8

가정법 현재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외로 문법에서 어렵게 생각이 되는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도 사용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이듯이 구문이 난이도를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생활영어중심으로 구성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발맞추어 보다 실제 생활에 연관된 생생한 영어구문은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야 하겠다. 문법이 어려울지언정 일상생활에서 유사한 상황에 필요한 구문이라면 접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다음은 원어민 초등저학년의 가정법 구문의 예이다.

a) If I had made my chrysalis on the bottom of the jar, my wings would have stuck to the magic liquid, and I would have died. (가정법 과거완료)

b) I think it would be wiser if I helped myself to pie.

(가정법 과거)

c) If I make my chrysalis, make sure you do not touch me until I am all the way dry and let me go within a day.

(가정법 현재)

d) If you'll tell me this riddle, I'll give you a ring!

(가정법미래)

7) 관계사(Relatives)

관계사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부연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관계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이 명사 뒤에서 수식하므로 말을 할 때 어순을 생각해 내서 구사하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여기서도 우리나라 초등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관계로 원어민들의 영어구문에 나온 관계사의 비율을 알아 보겠다.

[표 10]관계사-1 (%)

원어민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관계사	5	3	5

[표 10]에서 관계사가 5%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계대명사가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 [표 11]를 보면 관계대명사가 who, whom, which, where, that, 생략구문들이 사용이 되었고 그 기능들은 주격, 목적격, 형용사, 소유격의 기능으로 사용되어짐

을 알 수 있다.

[표 11]관계사-2 (%)

원어민 관계사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who(주)	24	36	36
whom			2
which(주)			2
which(목)			6
which(형)			4
that(주)	36	4	12
that(목)	3	16	10
that(형)			4
생략(주)	3	16	
생략(목)	3	4	4
what	24	20	12
where	9	4	10

[표 11]에서 살펴본 결과 관계대명사 주격 who가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사람, 사물, 동물을 선행사로 취하는 that도 사용빈도가 높았다. 대체적으로 원어민 초등저학년(pre-teen)에서는 다양한 관계대명사 형태와 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 와 원어민 유치부(kindergarten)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관계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대명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음은 원어민 아동영어에 나오는 관계대명사의 예문이다.

a) There is a cow that goes MOO.....and makes the milk for children to drink.(원어민 유아 : 주격관계대명사 that)

b) I didn't know what to do.(원어민 유아 : 관계대명사 what)

c) look who's coming.(원어민 유아 : 관계대명사 who)

d) on a tree lived bird that would not sleep.

(원어민 유치부 : 관계대명사 that)

e) But one was very curious and looked what happened in the area till late in the night.

(원어민 유치부 : 관계대명사 what)

f) After four years he arrived where he wanted to live and had a little farm, with lots of cows and pigs.

(원어민 유치부 : 관계부사 where)

g) Like every day he listened to his parents who talked about his Christmas present and their low wages.

(원어민 유치부 : 관계대명사 who)

h) My cousins, The Monarch butterfly, who has the most beautiful orange sunset wings with black markings and the most beautiful white moon spots on them, and the other butterfly is The Yellow Swallowtail.

(원어민 초등저 : 관계대명사 who)

i) One day a mouse was wandering through the jungle, not paying any attention to where he was going.

(원어민 초등저 : 관계부사 where)

j) In fact, he always did the exact opposite of what his mother told him to do.(원어민 초등저 : 관계대명사 what)

k) He was occupied in putting rusty nails into a bottle of ink, which he had obtained at the post office.

(원어민 초등저 : 관계대명사 which)

l) But round the end of a cucumber frame, whom should he meet but Mr. McGregor. (원어민 초등저 : 관계대명사 whom)

8) 특수구문(Structual Variations)

특수한 구문형태에는 도치, 강조, 생략, 삽입 등이 있다. 다음은 도치, 강조, 생략, 삽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문들이다.

<도치>

a) Never will I allow such a thing to happen.

->부정어구 및 부사어구 강조를 위해 문장 앞에 위치하게 되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b) Had I known that, I would not have done so.

->회화에 많이 사용되는 구문인 if 생략으로 인한 도치

c) Down came the rain.

->장소 부사구가 문두에 위치하는 경우

d) Don't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긴어구를 짧은 어구로 바꾸는 경우

e) So do I

->강조

f) Boy! Am I tired.

->회화에서 자주쓰이는 감탄문

<강조>

a) It is was around that corner that where the terrorist murdered the politician last night.

-> It~ that 강조구문

b) What is it that you want?

-> 조 의문사 강조

c) It is not until we lose ~

-> not ~ until 구문 강조

d) I do believe.

-> 조동사 do

f) It's getting colder and colder.

-> 반복

g) What in the world ~?

-> wh의문사 강조

<생략>

a) I think (that) he is honest.

->접속사 that 생략

b) When (she was) young, she was beautiful.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 동사가 같을 때.

<삽입>

a) The president, says the general, is ~

->say가 삽입되면 도치가 이루어진다.

특수구문은 회화에 빈번히 사용되는 구문들이 많은데 특히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에는 생략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표 12] 특수구문-1

(%)

대 상	3학년	4학년	5학 년	6학 년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특수구문	21	13	23	19	5	6	4

[표 12]을 보면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과서가 원어민 아동 영어 보다 특수구문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영어문장에서 21%가 4학년이 13%, 5학년이 23%, 6학년 19%정도가 특수구문이 차지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13] 특수구문-2

(%)

대상 특수구문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강조(반복)	4	5			35	37	54
도치	12	24	2	2	33	41	14
생략(주어)	16	23	12	33		5	15
생략(주어+be)	39	36	53	2		3	5
생략(주어+동사)	12	4	3	26	8	18	2
생략(동사)	12			5	5	2	3
생략(접속사)	4	1	5	4		2	2
생략(목적어)			5	10			
생략(절)			2	4		2	
생략(기타)	4	5	3	4	20		2

[표 13]을 보면 도치구문은 초등3년, 4년 영어구문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도치구문은 우리말에는 생소하기 때문에 회화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부분이다. 대부분 도치구문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here you are' 구문이 대화에 많이 쓰였다. 그리고 생략(ellipsis) 구문이 전체적으로 반 이상을 보일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략은 기본적으로 언어 사용의 경제성과 정보전달의 명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격식을 차리지 않는 친근감 등을 더해주기 때문에 구어체에서 특히 많이 사용된다(Hymes, 1972).

김금령(1990)은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끌기 위해 예측 가능한 생략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으며, 또한 잉여성을 피하거나 시간과 노력을 덜 수 있는 효율성을 위해 생략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Greenbaum과 Quirk(1995)은 엄격한 생략 현상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ellipsis requires VERBATIM RECOVERABILITY ; that is, the actual word or words that are implied must be precisely recoverable.

생략은 앞 뒤 문맥의 상황을 보아서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 생략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생략의 구문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thank you!나 happy birthday!처럼 이미 친숙한 표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원어민 아동영어에서는 초등영어교과서보다 특수구문 비율보다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생략에 의한 구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우리 초등교과서와는 달리 원어민 아동영어는 반복에

의한 강조구문과 생략구문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초등영어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생략의 예문들이다.

- a) Thank you, Minsu.(초등3년 : 주어 생략)
- b) Oh! Too small.(초등3년 : 주어+be 생략)
- c) How many cow?(초등3년 : 주어+동사 생략)
- d) Sorry, I can't.(초등4년 : 주어+be 생략)
- e) Sure I can help you.(초등4년 : 주어+be 생략)
- f) I hope so.(초등5년 : 목적절 생략)
- g) Nice to see you again.(초등5년 : 주어+be 생략)
- h) No problem.(초등6년 : 주어 +be 생략)
- I) Wow great.(초등6년 : 주어 +be 생략)

다음은 반복 구문의 예이다.

- a) They all hooked on and they pulled and pulled and pulled.(원어민 유아)
- b) There was mud on the wheels, mud on the cab and mud on the auger.(원어민 유치부)
- c) Busy going to the mall, busy going to work, busy going somewhere.(원어민 초등저)
- d) He went around and around the field.(원어민 초등저)

9) 분사구문(Participle Clause)

분사구문은 언어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문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의 원형을 분사화시켜 간략하게 만드는 형태이다. 구어체 보다 문어체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당히 격식을 갖춘 구문이다. 역시 현행 초등교과서에는 다루지 않는 관계로 [표 14]에서 나타나는 원어민 아동영어에서의 분사구문 비율을 보겠다. 전체적으로 각각 6%, 2%, 8% 정도 분사구문이 차지하고 있었다.

[표 14] 분사 구문-1 (%)

원 어 민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분사 구문	6	2	8

다음 [표14]는 원어민 아동영어에서 현재분사, 과거분사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 구문과 원어민 초등저학년(pre-teen) 구문에서는 과거분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원어민 유치부(kindergarten) 구문에서는 현재분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표 15] 분사 구문-2 (%)

원어민 분사 구문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현재분사	27	80	44
과거분사	71	20	56

다음 예에서 보듯이 원어민 아동영어구문에서 보이는 과거분사와 현재분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서술적 형용사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구문들이라 하겠다. 원어민 아동영어 분사 구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는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의 분사 구문이다.

- a) Lizards lie on rocks to get warmed up by the sun.(과거분사)
- b) This toy is called a JACK-IN-THE-BOX.(과거분사)
- c) The triangle shaped cookies are called Hamantashen.
(과거분사)
- d) My wings got caught on a farmer's wire fence and I
can't fly any more. (과거분사)
- e) Oh, no the big fish was eaten by a bigger fish.(과거분사)
- f) It can sail on the water using the wind.(현재분사)
- g) A hopping frog is Green!(현재분사)
- h) Silly sally went to town walking backwards, upside
down. (현재분사)

다음은 원어민 유치부(kindergarten) 분사 구문의 예이다.

- a)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kind and beautiful girl
named... (과거분사)
- b) All people were supposed to drive away.(과거분사)
- c) There was a tiger named Hopy.(과거분사)
- d) It was amaging adventure.(현재분사)
- e) They found a deer running fast.(현재분사)

마지막으로 원어민 초등저학년(pre-teen) 분사 구문의 예이다.

a) Rooster suddenly felt embarrassed by his behavior.

(과거분사)

b) The lion, tickled by the mouse's feet, reached up to scratch.(과거분사)

c) They were excited, I found out why a few minutes later!(과거분사)

d) Later that day, my wings were completely dried.

(과거분사)

e) He floated slowly along, enjoying a nice view of the other zoo animals.(현재분사)

f) I think that was her name too, because I heard bigger humans calling.(현재분사)

g) That name sometimes and they weren't talking to me!

(현재분사)

h) Mr. McGregor was on his hands and knees planting out young cabbages, but he jumped up and ran after Peter, waving a rake and calling out, "Stop thief!"(현재분사)

10) 준동사(Verbals)

[표 16] 준동사-1

(%)

대 상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준 동 사	0	3	3	6	6	9	11

준동사는 동명사, to부정사를 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16]를 보면 우리나라 초등교과서에서는 4학년, 5학년, 6학년 단계에 준동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원어민 아동영어에서는 초등저학년(pre-teen)으로 갈수록 준동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준동사-2 (%)

대상 준동사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동명사(명)			43	8	18	16	5
to부정사(명)		33	14	77	22	70	45
to부정사(형)				8	38	6	19
to부정사(부)		67	43	8	11	5	31

[표 17]을 보면 준동사를 동명사와 부정사(형용사, 명사, 부사)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 대체적으로 원어민 아동영어에서는 다양하게 준동사 표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 구문에서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영어에서는 준동사가 4학년 단계에, 동명사가 5학년 단계에 각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학년 단계에서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의아해 하겠지만 5학년, 6학년에서 보이는 모든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는 "nice to meet you."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아동들이 문법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구문이다. 따라서 어려운 구문일지라도 일상 생활에 자주 쓰이는 구문이라면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겠다. 문법이 어려워 가르치는 시기가 적당치 않다는 판단은 우리 초등생들이 다양하게 접해야 하는 영어구문을 제한할 수도 있다

고 하겠다.

준동사의 예들이다.

- a) I like to play soccer.(초등4년 :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 b) Nice to meet you, too.(초등5년 :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 c) I like skating.(초등6년 : 동명사)
- d) It makes the eggs for the children to eat.
(원어민 유아 : 형용사적 용법)
- e) "I need it to catch the bugs that come out at midnight!"
said Ziggy Bear. (원어민 유아 :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 f) We will use imagination to figure out.
(원어민 유치부 :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 g) He was determined not to get stuck even one more time
that day.(원어민 초등저 :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 h) There were crumbs and sugar and smears of jam to be
collected, in spite of the cat.
(원어민 초등저 :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 i) Remember if you decide to catch me or one of my
cousins crawling on a branch or elsewhere.
(원어민 초등저 :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 j) Peter never stopped running or looked behind him till he
got home to the big fir-tree.(원어민 초등저 : 동명사)

11) 접속사(Conjunctions : Linking Phrases/Clauses)

접속사는 문장 내에서의 연결, 대조, 전환, 부연 등의 다양한 형태적, 의미적 기능을 담당한다. 다음 [표 18]을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접속사 비율이 원어민 영어구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원어민 아동영어에서는 접속사 비율이 학년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8] 접속사-1 (%)

대 상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현 재 분 사	0	0	2	2	9	29	32

위 [표 17]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초등 5, 6학년 교과서에서 보이는 접속사는 and, but이 대부분이었는데, 다음 [표 19] 원어민의 아동영어에 사용되고 있는 영어 접속사를 보면 역시 and 접속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도 다양한 접속사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어민 유치부 영어구문에서는 that 접속사 생략의 구문이 많이 보여지고 있음은 특이할만한 사항이다.

[표19] 접속사-2

(%)

원어민 유형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and	78(50)	43	62
but	5	15	10
because		1	2
if			1
while	2		1
unless			
then			1
till	2		2
or			
as			1
as well as			
that	3	3	5
that 생략		22	3
so	2	4	
when	5	1	1
maybe		0	
if		0	
soon		1	
whatever		0	
and later		0	
after		0	
perhaps			0
for			1
though			0

원어민 아동영어 접속사 사용 예이다.

- a) when I jump it jump.(원어민 유아 : 접속부사)
- b) Aki notice that here is a big splash of water from the pond.(원어민 유아 : 접속사 that)
- c) "I thank you kindly, little dog, I fare as well as you!"(원어민 유아 : 접속사 as well as)
- d) I drop some of the seeds from the fruit as I fly.
(원어민 유아 : 접속사 as)
- e) What happens while Jack is sleeping?
(원어민 유아 : 접속사 while)
- f) They said, "The beast is in school!"
(원어민 유치부 : 접속사 that 생략)
- g) The gardener left the hamper by the garden gate, so that the carrier could pick it up when he passed.(원어민 초등저 : 접속사 so that)
- h) If he had not unfortunately run into a gooseberry net, and got caught by the large buttons on his jacket.(원어민 초등저 : 접속사 if)

12) 연결사(Cohesive markers)

연결사는 두 문장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의미관계를 표현함으로써 글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의사소통신장을 위하여 연결사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연결사에 대한 표현이 없었던 관계로 연결사표현이 풍부한 원어민 아동영어구문의 연결사에 관한 [표 20]를 보겠다.

[표 20] 연결사 (%)

원 어 민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연 결 사	3	12	9

원어민 아동영어에 나타난 연결사들은 하나의 표현이 높은 비율을 보이기 보다는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넓게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연결사 구문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초등아동들의 영어로 조리 있게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말의 응집력을 높여주는 이런 연결사 표현도 다뤄져야 하겠고 다양한 연결사 표현들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차츰 양을 늘려 나가야 하겠다. 다음은 다양한 원어민 아동영어 구문에서 보이는 연결사 표현들을 열거해 보겠다.

<원어민 유아>

after the rain	in june	on his way
at night	in the autumn	on the way
but right now	in the great green room	one day
the next morning	now	soon

<원어민 유치부>

after a while	soon	before long
after five days	suddenly	every one morning
after four years	that night	everyday
after that	the next day	few months later
after the big fight	the next morning	finally
after three days	the next morning	in nature
after two hours	the time	in the night
after two weeks	then	like every day
after while	this time	long age
at last	today	long time ago
at night	two days later	maybe
at that time	well	next
at this time	next day	now
on the way	next time	of course
on this day	on rainy days	on christmas

<원어민 초등저학년>

after	maybe	hours later
after a time	next time	in fact
after a while	now	in the water
after a while though	on the fifth day	in the wood
after that	on the sixth day	inside of the warm
all of a sudden	on the way	later that day
all of sudden	once	long long ago
also	once upon a time	long ago
and after much jolting	one day	at last
and just at the same	One hot fall day in	at least
time	Saskatchewan on a farm	
and to this day	perhaps	at that
as soon as	presently	at the moment
as time went by	rapidly	before
At a quarter past four	several time	but presently
to the minute		
at first	so	each time
at just at the same	soon	finally
time		
then	soon, then	first
therefore	suddenly	for my part
though	that day	For the first few days
today as usual	the next day	Half-way up the lane
up there	very punctually	well
		with the utmost politeness

13) 비교구문(Comparisons)

영어 비교급도 회화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비교급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영어를 익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인지적으로 낮은 원어민 유아(infant나 toddler) 구문보다도 더 늦은 감이 있다.

6학년 초등 영어교과서에서 대화 속에 나오는 비교구문은 3문장 정도였다. 그리고 원어민 아동 영어에서도 전체 구문의 수에 비해 비교구문은 예상외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 21]에서 보듯이 비교급뿐만 아니라, 원급, 최상급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1] 비교구문 (개수)

대상 비교급	6학년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원급		1		1
비교급	3	4	8	3
최상급			2	2

다음은 비교급 예문이다.

- a) You're stonger than Mike.(초등6년)
- b) I'm stronger than you.(초등6년)
- c) The shorter she grows.(원어민 유아)
- d) Now he's getting older.(원어민 유아)
- e) The animals are much happier outside in the fresh

air.(원어민 유아)

f) Ahh, it' s so much quieter in here.(원어민 유치부)

g) When she saw the envoy, Cinderellas heart beat faster.(원어민 초등저학년)

h) When caterpillars have outgrown a few skins and are much bigger.(원어민 초등저학년)

i) They find a cozy warm place underneath a sturdy branch. (원어민 초등저학년)

j) My cousins, The Monarch butterfly, which has the most beautiful orange sunset wings with black markings and the most beautiful white moon spots on them, and the other butterfly is The Yellow Swallowtail.

(최상급 : 원어민 초등저학년)

k) Not even the North Wind is as fast as I am!

(원급 : 원어민 초등저학년)

14) 의사소통기능(functions)

의사소통기능(functions)는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되는 사항을 보면 “음성언어활동을 위하여 아래의 의사소통기능과 예시문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나, 그 밖의 기능이나 문장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의사소통기능(functions)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교활동>

- 인사 :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하기, 안부 묻기, 안부 묻기
에 답하기
- 소개 : 자기 소개하기, 다른 사람을 소개하기
- 감사 : 감사 표현하기, 감사 표현하기에 답하기
- 주위 끌기
- 칭찬, 축하, 감탄 : 칭찬하기, 축하하기, 감탄하기
- 약속 : 약속 제안하기, 제안에 답하기
- 기원
- 음식 권유, 응답 : 음식 권하기, 승낙, 거절하기

<사실적 정보교환>

- 사실적 정보
- 사실 확인 : 확인하기, 확인에 답하기
- 사실묘사
- 습관
- 경험 : 경험 묻기 및 말하기
- 계획
- 비교

<지적 태도 표현>

- 동의나 반대 : 동의를 묻거나 말하기, 반대하기
- 제의, 초대 : 제의, 초대하기, 제의 • 초대 거절하기,
- 제안 : 제안하기, 승낙하기, 거절하기
- 가능, 불가능 : 가능성 묻기 및 표현하기, 불가능 표현하기

[표 22] 초등3년의 의사소통기능(functions)

function(초등3년)	%	개수
지시	17.1	21
사실적 정보	13.8	17
인사	9.8	12
가능	6.5	8
감탄	4.9	6
사실 확인	4.9	6
제안	4.9	6
사과	4.1	5
좋아함	4.1	5
감사	3.3	4
거절	3.3	4
묘사	3.3	4
싫어함	3.3	4
놀람	2.4	3
동의	2.4	3
감사 답	1.6	2
사과 답	1.6	2
상대	1.6	2
요청	1.6	2
축하	1.6	2
격려	0.8	1
소개	0.8	1
수락	0.8	1
주위 끌기	0.8	1
칭찬	0.8	1
총 합계	100	123

그럼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의사소통기능(functions)의 분포에 대한 [표 22]을 보도록 하겠다. 대다수가 지시의 글과 사실적 정보, 인사에 대한 구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실적 정보라 함은 사실적 정보교환의 활동으로 예를 들어서 “How many apples?”, “Whoes pencil is this?”와 같은 표현을 말한다.

초등학교 3학년 의사소통기능(functions)에 대한 예문들이다.

- a) put on your sweater.(지시)
- b) open your book.(지시)
- c) how many?(사실적 정보)
- d) What's this?(사실적 정보)
- e) hello Minsu.(인사)
- f) hello everyone.(인사)

[표 23] 초등4년의 의사소통기능(functions)

function(초등4년)	%	개수
사실적 정보	23.4	41
물건사기	11.4	20
사실 확인	10.3	18
묘사	8	14
소개	6.9	12
인사	6.3	11
청유	5.7	10
좋아함	4.6	8
지시	3.4	6
감사	2.3	4
감탄	1.7	3
경고	1.7	3
원하는 것	1.7	3
음식권유	1.7	3
주위 끝기	1.7	3
놀람	1.1	2
사과	1.1	2
요청	1.1	2
제의	1.1	2
금지	0.6	1
동정	0.6	1
불가능	0.6	1
싫어함	0.6	1
제안	0.6	1
제안승낙	0.6	1
축하	0.6	1
칭찬	0.6	1
총 합계	100	175

[표 23]은 초등학교 4학년에 나오는 의사소통기능(functions)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적 정보, 물건사기, 묘사, 사실 확인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사실 확인이라는 것은 확인하기와 확인에 답하기가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Is this your pencil?" 같이 물으면 "No, it isn't."로 대답하는 것이다.

다음은 4학년 의사소통기능(functions)에 대한 예이다.

- a) What time is it mom?(사실적 정보)
- b) How old are you?(사실적 정보)
- c) Help me, please.(물건 사기)
- d) How much is it?(물건 사기)
- e) Is this your cat, Mina?(사실 확인)
- f) No it isn't.(사실 확인 답)
- g) My bat is white.(묘사)

[표 24] 초등5년의 의사소통기능(functions)

function(초등5년)	%	개수
사실적 정보	22.7	54
경험	7.6	18
인사	6.7	16
제안	6.7	16
전화	5.5	13
지시	4.6	11
질 묻기	4.2	10
감탄	3.8	9
동의	3.8	9
묘사	3.8	9
제의	3.8	9
소개	3.4	8
습관	2.9	7
주위 끝기	2.5	6
감사	2.1	5
사실 확인	2.1	5
음식 권하기	2.1	5
칭찬	2.1	5
가능	1.7	4
좋아함	1.7	4
놀람	1.3	3
승낙	1.3	3
안부	1.3	3
되묻기	0.8	2
의무	0.8	2
축하	0.8	2
총 합계	100	238

[표 24]는 초등학교 5학년 의사소통기능(functions)의 분포를 나타내는 표이다. 사실적 정보, 경험, 인사, 제안, 전화에 대한 표현 순으로 나타난다. 앞의 [표 6]를 보면 5학년부터 과거시제를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의사소통기능(functions)에서 ‘경험’부분이 첨가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제의 다양한 표현을 알지 못하면 그만큼 3, 4학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의 폭도 줄어들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학년 의사소통기능(functions)의 예이다.

- a) What are you doing?(사실적 정보)
- b) I'm cleaning your shoes.(사실적 정보 답)
- c) I helped old people there.(경험)
- d) Did you have a nice vacation?(경험)
- e) Nice to see you again.(인사)
- f) Let's go together.(제안)
- g) Sound great!(제안에 답)
- h) Hello, this is Peter.(전화)

[표 25] 초등6년의 의사소통기능(functions)

function(초등6년)	%	개수
사실적 정보	13.8	31
경험	8.4	19
질 묻기	6.7	15
제안	6.2	14
묘사	5.3	12
계획	4.9	11
초대	4.9	11
소개	4.4	10
물건사기	4.0	9
안부	4.0	9
요청	3.6	8
인사	3.1	7
원하는 것	2.7	6
좋아함	2.2	5
칭찬	2.2	5
감사	1.8	4
동의	1.8	4
비교	1.8	4
전화	1.8	4
지시	1.8	4
가능	1.3	3
감탄	1.3	3
기원	1.3	3
놀람	1.3	3
음식권유	1.3	3
의견표현	1.3	3
축하	1.3	3
동정	0.9	2
반대	0.9	2
주위 끝기	0.9	2
확신	0.9	2
경고	0.4	1
금지	0.4	1
기쁨	0.4	1
되묻기	0.4	1
승낙	0.4	1
제의	0.4	1
총 합계	100	225

[표 25] 초등학교 6학년 구문에서는 사실적 정보부분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6학년 의사소통기능(functions)의 예이다.

- a) What middle school are you going to?(사실적 정보)
- b) Where is jane?(사실적 정보)
- c) Because I got a present from my grandma.(경험)
- d) I played baseball with my friends.(경험)
- e) Where is Han gook elementary school?(길 묻기)
- f) Do you know this Korean restaurant?(길 묻기)
- g) Let's skate together.(제안)
- h) Ok, let's go to my house.(제안)

[표 26] 원어민 유아의 의사소통기능(functions)

function(원어민 유아)	%	개수
묘사	50.0	362
소개	11.5	85
사실적 정보	9.6	71
가능	6.2	46
경험	5.7	42
사실 확인	5.3	39
인사	3.0	22
지시	2.6	19
감탄	1.6	12
좋아함	1.2	9
의견	1.1	8
계획	9.5	7
요청	0.8	6
놀람	0.5	4
제안	0.5	4
기원	0.4	3
총 합계	100	739

원어민아동 영어구문에서 다양하게 의사소통기능(functions)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부분만을 다뤄보았다. [표 26]는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구문에서 나오는 의사소통기능(functions)이다. 영어동화가 대부분이어서 묘사 부분과 등장인물소개에 대한 소개부분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추측된다.

다음은 원어민 유아구문의 의사소통기능(functions)의 예이다.

- a) The clown's head pops out.(묘사)
- b) The word HELICOPTER starts with an "H".(묘사)
- c) This is a boy flying a KITE.(소개)
- d) This is an IGLOO, it is a home built out of snow.(소개)
- e) Can you guess whose baby is whose?(가능)

[표 27] 원어민 유치부의 의사소통기능(functions)

function (원어민유치부)	%	개수
묘사	52.1	480
경험	4.7	43
원하는 것	4.6	42
소개	3.4	31
놀람	3.1	29
사실 확인	2.8	26
계획	2.6	24
좋아함	2.6	24
사실적 정보	2.4	22
물건사기	2.3	21
지시	2.2	20
가능	2.0	18
제안	1.8	17
감탄	1.5	14
불가능	1.5	14
기쁨	1.2	11
요청	1.1	10
주위 끌기	1.0	9
화남	1.0	9
인사	0.9	8
음식권유	0.8	7
의무	0.8	7
이유	0.8	7
사과	0.7	6
걱정	0.5	5
슬픔	0.5	5
경고	0.4	4
기원	0.4	4
두려움	0.4	4
총 합계	100	921

[표 27]은 원어민 유치부(kindergarten)의 의사소통기능(functions)의 분포를 나타낸다. 묘사가 역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원어민 유치부(kindergarten)에 나오는 의사소통기능(functions)의 예들이다.

- a) Lightening flashes and thunder crashes.(묘사)
- b) Sly Fox runs round and round.(묘사)
- c) But one was very curious and looked what happened in the area till late in the night.(묘사)

[표 28] 원어민 초등저학년(pre-teen)의 의사소통기능(functions)

functions (원초등저)	%	개수
묘사	64.8	571
계획	4.7	41
소개	2.7	24
감탄	2.5	22
가능	2.4	21
사실적 정보	2.3	20
지시	2.2	19
놀람	2.0	18
사실 확인	2.0	18
음식권유	1.9	17
의견	1.4	12
확신	1.1	10
원하는 것	0.9	8
좋아함	0.9	8
이유	0.8	7
제안	0.8	7
가정	0.7	6
경험	0.7	6
불가능	0.7	6
희망	0.7	6
금지	0.6	5
기쁨	0.6	5
물건사기	0.6	5
의무	0.6	5
비교	0.5	4
의심	0.5	4
부정	0.3	3
요청	0.3	3
총 합계	100	881

[표 28]은 원어민 초등저학년(pre-teen)에서 나오는 의사소통기능(functions)의 예이다. 묘사가 지배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어민 초등저학년(pre-teen)에 나오는 의사소통기능(functions)의 예이다.

- a) But Peter, who was very naughty, ran straight to Mr. McGregor's garden, and squeezed under the gate.
- b) Deanna's Grandma hooked on to the grain truck and the tractor with the swather and they pulled and pulled until finally they got the combine out.

15) 이독도(Readability) 측정

이독도(readability)에 관한 개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a) To indicate ease of understanding or comprehension due to the style to writing.(Klare : 1963)
- b) The readability of a sentence is the degree of ease with which the reader can recover the meaning of the sentence.(Park : 1977)
- c) ...by readability we are referring to those aspects of a text which make it easy for a reader to understand. (Harrison : 1980)

위의 정의에 따라 조석주(1985)논문을 참고하면 readability란

문장의 난이도 수준을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는 독해 용이도, 즉 문장을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측해 주는 이독도(易讀度)를 말한다. 그리고 이독도(readability)란 학습자료를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학습 자료의 유형 및 무형의 모든 속성의 총체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독도(readability)의 요인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Readability is a function of many variables. Among them are such factors as content, style, motivation and background of the reader, vocabulary load and syntax. (Kaiser-Neils-Floriani : 1975)

말하자면 이독도(readability)의 요인은 학습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와 구문이라는 유형(有形)의 문장요소와, 그 문장에 내포되고 있는 의미와 그 문장을 다루는 학습자의 학습의욕 및 학습동기 등의 무형(無形)의 배경 요소와의 상호작용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형인 문장요소의 작용이란 지식 전달자의 어휘 및 구문과 지식을 전달받는 자의 어휘와 구문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유형 및 무형의 이독도(readability) 요인 중에 유형의 요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독도(readability)의 유형적 요소인 교과서 문장 구문에 초점을 두어 그 문장의 난이도가 초등아동들에게 적당한지 아니면 너무 쉬운지의 여부를 원어민 아동영어구문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독도(readability)는 Grammatic IV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내용으로써 Flesch RE Formula, 어휘길이, 문장의 길이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초등교과서 구문과 원어민 아동영어구문을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① Flesch RE Formula

Rudolf Flesch의 RE(Reading Ease) Formula는 1948년에 발표된 것으로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식이다. 참고로 Flesch RE Formula를 산출하는 공식과 계산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석주 : 1985).

[표 29] RES 공식

공식 :

$$\text{RES(Reading Ease Score)} = 206.835 - (0.846 \times \text{SYLL}) - (0.015 \times \text{SL})$$

SYLL = Number of syllables
SL = Sentence Length

계산방법 :

- 1.(W) Count the number of words in the sample.
- 2.(S) Count the number of sentences in the sample.
- 3.(SL) Determine the average sentence length in words.
- 4.(SYLL) Count the number of syllables in the sample.
- 5.(WL) Determine the average word length in syllables(SYLL/W).
6. $1.015 \times (3)$
7. $0.846 \times (4)$
8. 206.835

$$\text{RES} = (8) - (7) - (6)$$

Flesch 공식으로 산출된 수치는 그것이 바로 학년수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예측하는 독해 용이도 지수(Reading ease score)이다. 이 용이도 지수는 0~100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는데, 이 수치가 크게 나온 문장은 이해하기 쉽고, 적게 나온 문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한다. 다음 [표 30]은 초등영어구문과 원어민 아동영어 구문에서 보여지는 RES(Reading Ease Score)지수를 나타낸다.

[표 30] RES

대상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RES	100	100	100	100	96	95	83

우리초등영어 교과서 지문은 모두 지수 100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민 아동영어구문 유아(infant & toddler) 지수 96보다도 높게 나왔다. 지수가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초등영어 교과서 구문은 학년의 단계와 상관없이 이해하기 쉬운 구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어민 초등저학년의 지수가 83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점점 다양하고 어려운 문장들을 원어민 초등저학년은 접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 초등 아동들은 초등학교 최고의 학년이 되어서도 문장의 난이도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② Sentence Statistics

[표 31] 문장의 길이

대상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전
문장의 길이	2.3 words	3.2 words	3.3 words	3.7 words	6.9 words	6.6 words	12.8 words

[표 31]은 문장의 길이를 분석해 놓은 표이다. 이것은 한 문장안의 평균 단어 수로써 평균 문장의 길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의 문장의 길이가 3.7 단어(words)인데 반해 원어민 아동영어는 가장 초급의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의 6.9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고급단계인 원어민 초등저학년(pre-teen)의 지수에 1/4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과서의 평균 문장의 길이는 원어민 아동영어의 초급단계보다도 더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Word Statistics

[표 32] 어휘 길이

대 상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원) 유아	(원) 유치부	(원) 초등저
어휘 길이	3.68 letters	3.41 letters	3.68 letters	3.72 letters	3.84 letters	3.89 letters	4.09 letters

[표 32]은 한 단어속의 평균 철자의 수로 평균 어휘길이를 나타내는 표이다. 즉 길이가 짧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읽기

쉬운 교재라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원어민 초급의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의 평균 철자수가 3.84 철자로 나타나고 있고 원어민 초등 저학년에서는 4.09철자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가장 고학년인 초등6학년 교과서의 평균 어휘가 3.72철자로 원어민 유아의 3.84 철자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IV. 결론과 제언

지금까지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과서와 원어민아동영어 구문을 단/중/복문(Type of sentences), 문장의 형식(Verb-based Basic Structures), 문장의 종류(Sentence Types & Discourse Functions), 시제(Tense & Aspect), 태(Passive Voice : Subject ←Object), 법(Mood : Tone/Attitude), 관계사(Relatives : Linking Antecedents with Modifying Clauses), 특수구문(Structural Variations), 분사구문(Participle Clauses), 준동사(Verbals), 접속사(Conjunctions : Linking Phrases/Clause), 연결사(Cohesive Markers), 비교구문(Comparisons), 의사소통기능(Functions), 이독도(Readability) 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영어를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명확한 목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선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를 보자.

- 가.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 나.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한다.
- 다.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라.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우리나라 초등영어교육의 목표는 원어민들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고하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 초등아동들 자신이 세계인(cosmopolite)이라고 자부하고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를 배워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게 영어에 동기의식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터넷상에서 세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은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바탕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초등교과서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원어민 아동영어와 우리나라 초등교과서를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지적으로 볼 때 원어민아동들보다 높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교과서는 분석 항목에서 인지적으로 낮은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 영어구문보다도 여러 가지 표현의 다양성에 있어서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수집된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의 구문을 볼 때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 기간의 아동들에게는 구문의 발화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구문들이었지만, 다양한 표현의 구문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표현에 발음기관이 덜 성숙한 원어민 유아들일지라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초등교과서는 어떠한가? 인지수준으로 볼 때 원어민 유아들보다 높지만 교과서의 수록된 구문들을 보면 원어민 유아(infant & toddler)들의 영어구문보다도 영어표현이 많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독도(Readability) 지수에서도 모든 초등교과서가 원어민 아동 초급수준보다도 아주 쉬운 단계로 나타나고 있는 점들은 우

리 초등아동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폭이 극히 제한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사실 학원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제, 법, 관계사의 문법차원에서 어려운 구문일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구문이라면 수록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바로 이렇게 문법이 어렵지만 일상생활에 잘 쓰이는 표현을 수록한 예가 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단계에서는 준동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지만 준동사가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바로 “nice to meet you.”, “glad to meet you.”라는 표현들이다. 이것은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에게 문법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문법 사항이다. 그러나 초등 아동들이 문법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인사구문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아주 무리함이 없이 아동들이 발화하는 것은 그 만큼 이 구문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고 있기 때문이고 낯설어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우리 교과서가 초등아동들의 영어의 발화에 더 비중을 두어 쉽고 간단하고 제한된 영어표현만을 수록하는 것을 지양해서 상대적으로 초등아동들에게 다양한 표현의 원어인 구문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교재편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러나 다양한 영어구문의 수록은 자칫 영어가 어려워져서 처음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 이론적 배경에서도 말했듯이 언어 적성이나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언어습득의 시작 연령만을 고려한다면, 어린이가 성인보다 구문의 습득에서 우월하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 영어를 배우는 유년기 시절이 구문학습에 있어서 민감한 시기이므로 영어를 배우면서 아동들에게 영어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아동들에게 실생활과 연관된 여러 가지 영어표현들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스스로 그 다양한 영어구문들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러한 다채로운 영어표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것이다. 나아가 교과서 밖의 영어구문에 대해서도 응용력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초등 아동들의 영어실력을 한층 신장시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교육적 관심과 실제적인 교재분석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금령.(1990). 영어의 Ellipsis.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장숙.(1996). 문맥 활용이 수동문 이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노경희.(2002). 초등영어 습득론(Elementary English Teaching by Lanuage Acquisiton Principles). 한국문화사.
- 이완기.(1994). 초등영어 교육론(Teaching Primary English in Korea). 문진미디어.
- 오일화.(2001). 상호 작용적 의사소통활동이 영어구문의 습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 유현훈.(2001). Writing Style에 근거한 Model Essays의 구문분석.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 조석주.(1985). 영어 READABILITY의 측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
- 최인철.(1997). 실용영어어법. (주)현대영어사.
- 홍진옥.(1999). 21세기를 위한 초등영어지도. 민지사.
- Bialystok, E.(1997). *The structure of age*, In search of barriers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Research.
- DeKeyser, R.(2000). *The robustness of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Flesch, R, F.(1948). *A new Readability Yardstic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 Greenbaum, S. & Quirk, R.(1995).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8th Ed. Londo, Longman.
- Harrison, Colin(1979). *Assessing the Readability of School Texts*, in Eric Lunzer and Keith Gardner(Eds.), *The Effecive Use of Reading*, Londo, William Clowes & Sons, Limited.
- Hymes, D. H.(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and J. Homes(eds)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 Penguin.
- H. Douglas Brown(1994). *Teaching by Principles*, Prentice Hall Regents.
- Johnson, J. & Newport, E.(1989).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influence of maturational state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ognitive Psychology*.
- Oyama, S.(1978). *The sensitive period and comprehension of speech*,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 Park, Nam-Sheik(1977). *Variables in Sentential Readabil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EFL/ESL for Korean Learners*,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 Patkowaski, M.(1980). *"The sensitive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 White, L., & Genesee, F.(1996). *How native is near-native?,The issue of ultimate attainment in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Research

<연구를 위한 구문 발췌 자료>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과서>

Elementary School English 3.

Elementary School English 4.

Elementary School English 5.

Elementary School English 6.

<원어민 아동동화>

Audrey Wood. “Silly Sally” : Red Wagon Books

Bill Martin Jr. “Chicka Chicka abc” : Little Simon

Jean Marzollo. “I spy little letters” : Scholastic

John Butler. “Whose baby am I?” :

Margaret Wise Brown. “Goodnight Moon” : HarperFestival

Taro Gomi. “Spring is Here” : Chronicle books

<원어민 아동동화 인터넷 사이트>

<http://www.allkids.co.uk/index.shtml>

http://www.asiabigtime.com/storybooks/aki_menu.html

http://www.canadianparents.com/preschool/preschool_stages.htm

<http://www.circle-of-friends.com/>

<http://compedu.cue.ac.kr/~eerc/2000-2/html/5.htm>

<http://www.ilovestory.com/book/book.htm>

<http://www.kiddyhouse.com/>

<http://lil-fingers.com/storybooks/index.html>

<http://www.magickeys.com/books/bee/index.html>
<http://www.magickeys.com/books/index.html>
<http://makingfriends.com/>
<http://www.naturegrid.org.uk/infant/swan/bksw3.html>
<http://www.nickjr.com/index.jhtml>
<http://www-personal.engin.umich.edu/~ajdrake/toddler/open.htm>
<http://www.region-online.de/bildung/fds/f-stories.htm>
<http://robertmunsch.com/>
<http://www.sanford-artedventures.com/play/play.html>
http://www.suksuk.co.kr/story/world_for.php3
<http://www.warnerbros.com/ltti/index.html>
<http://wiredforbooks.org/kids.htm>

ABSTRACT

A Structural Analysis between English textbooks in
Korea and English stories for children in ESL
settings.

Kim, Eun-Sil

Major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desirable ways for the improvement of English textbook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text analysis.

To think of the ultimate purpose of English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 least we should prepare the ability for Korean children to exchange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quite freely in the future. At this point, I doubt very much whether English textbooks in Korea will be able to cover this. Therefore, I analyze the construction by comparing Korean English textbooks and English storybooks for children in ESL setting.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must be a difference of English structure between Korean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and English storybooks, I will try to know how and where it take place. The analyses of each English structures are conducted according to 13 criteria : Type of sentences, Verb-based Basic Structure, Sentence Types & Discourse Functions, Tense & Aspect, Passive Voice : Subject ←Object, Mood: Tone/Attitude, Relative : Linking Antecedents with Modifying Clauses, Sturctural Variations, Participle Clause, Verbals, Conjunctions : Linking Phrases/Clause), Cohesive Markers, (Comparition), Function, Readability.

This study concludes that Korean English textbooks contain simple and limited English expressions, even though the cognitive level of Korean elementary students is higher than children of ESL sett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nglish education, this is an undesirable way that Korean elementary students have no opportunity to have contact with authentic English expressions through the text books.

Thus I insist that Korean English textbooks should use various English expressions whether they are difficult to explain the matter of grammar.

But there is much room for consideration that Korean children

stir up their morale in learning English.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don't have to urge the Korean elementary students to memorize all the expression in textbooks. English textbooks should have authentic English expressions in relation to the real world and should encourage Korean elementary students to use those expressions in real context.

In order to survive in this competitive society, it is required to conduct a study to develop textbooks. And also the people responsible choosing the Elementary English textbook must put forth all their energy to choose a textbook through the much educational passion and substantial study.

I hope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both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and English education in Korea.